

훈방대상 비행청소년의 분노, 분노대처 및 스트레스반응 - 비행예방프로그램 참가자를 중심으로 -

ANGER, ANGER COPING AND STRESS RESPONSE IN DELINQUENT ADOLESCENTS RELEASED WITH WARNING BY POLICE - FOCUSED ON THE PARTICIPANTS OF THE INTERVENTION PROGRAMS -

박상군^{1)†} · 이후경²⁾ · 윤성철³⁾ · 안현주³⁾ · 김선재³⁾ · 방양원¹⁾ · 장혜진⁴⁾

Sang-Kun Park, M.D.,^{1)†} Hoo-Kyeong Lee, M.D.,²⁾ Sung-Chul Yoon, M.D.,³⁾
Hyun-Joo Ahn, M.S.W.,³⁾ Sun-Jae Kim, M.D.,³⁾
Yang-Weon Bang, M.D.,¹⁾ Hye-Jin Jang, M.A.⁴⁾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가벼운 비행을 저지른 '훈방대상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분노, 분노대처, 스트레스반응 각각의 특성과 이들의 성별, 학년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방법 :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 '사랑의 교실' (비행예방 프로그램)에 참석한 비행청소년 285명과 서울시내 일반청소년 391명(남 : 377명, 여 : 299명/중 : 346명, 고 : 330명)이었으며, 이들에게 한국판 상태-특성분노표현척도와 사건충격척도를 실시하였다.

결과 : 1)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서 상태분노, 특성분노, 전체분노, 분노표출은 높았고, 분노억제, 분노조절, 스트레스반응은 낮았다.

2) 남자 비행청소년이 여자 비행청소년보다 분노조절과 스트레스반응이 더 높았고 분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3) 고등학교 비행청소년에서 중학교 비행청소년에 비해서 특성분노와 분노조절이 더 높았고, 고등학교 일반청소년이 중학교 일반청소년에서보다 스트레스반응이 더 높았다.

결론 : '훈방대상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과는 분노, 분노대처, 스트레스반응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학년과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특성들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더욱 쉽고 효과적으로 적용 될 수 있다.

중심 단어 : 비행청소년 · 분노 · 분노대처 · 스트레스반응.

서 론

品行장애 청소년은 청소년기에 겪는 특수한 발달단계의 문제 외에도 그들 특유의 정신병리로 인해 복잡한 상태에 있다. 이들에 의한 비행은 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정신병리 현상 중 하나이며 개인이나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으로도 막대한 손실과 악영향을 주는 질환 중 하나이다¹⁻³⁾.

본 연구의 대상인 비행청소년은品行장애의 일부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전부 해당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品行장애의 진단기준에 맞지는 않지만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이 현실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비행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비행청소년 특성과 관련된 몇몇 연구들에 의하면 비행청소년

¹⁾계요병원 Keyo Hospital, Uiwang

²⁾이후경정신과의원 Lee Hoo-Kyeong's Psychiatric Clinic, Hanam

³⁾팜트리정신과의원 Palm Tree Psychiatric Clinic, Seoul

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교신저자 : 박상군, 437-020 경기도 의왕시 왕곡동 280-1 계요병원

전화 : (031) 455-3333 · 전송 : (031) 452-4110 · E-mail : trumpeto@hanmail.net

년은 비행수준과 비행 시작시기에 따라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비행에 대한 연구 중에서도 특히 가벼운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들의 비행재발을 방지함으로써 더 심한 비행으로 이행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며, 심한 비행으로 고착된 경우보다 더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 가벼운 비행을 한 초기단계의 비행청소년에 대한 외국연구를 살펴보면, 사회, 문화적 불리함, 부모의 태만, 또래 비행친구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적응적(adaptive) 또는 하위문화적(subcultural) 비행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들은, 동반질환이 많고 정신병리가 심한 비행과는 구별이 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명확한 특성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⁵⁾.

선행연구⁶⁾를 보면, 이러한 적응적 비행에 가장 부합되는 집단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들을 ‘훈방대상 비행청소년’이라고 칭하였다. 가벼운 비행 중에서 법적으로 범법행위를 하였으나 형사처벌을 할 정도는 아닌 경우 ‘훈방대상 비행청소년’으로 분류된다. 이들의 대부분은 부모의 이혼, 낮은 사회경제수준 등의 사회문화적으로 불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초범이며 비교적 가벼운 비행을 했고, ‘사랑의 교실’이라는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비행예방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집단이다. 또한 이들의 사회심리적 특성을 살펴보면, 비행, 공격성, 외현화는 높았으나 기타 일반적인 정신병리 현상들 즉 위축, 우울, 불안 사고문제, 집중력, 내재화는 일반집단과 비교해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이들은 정신병리가 심하며, 진행 중인 비행청소년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일반학생과 유사한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훈방대상 비행청소년’들은 비행예방프로그램 중 가장 비중이 높은 프로그램인 사회심리극과 집단치료를 시행하면서, 우울이나 불안보다는 분노를 주된 정서반응으로 보였다. 그리고 자신들이 충격적으로 경험했던 다양한 사건들(경찰서에 잡혀서 구류된 경험)이 의지와 상관없이 떠오르거나, 피하려고 하는 등의 스트레스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들이 보이는 분노와 스트레스반응에 대해서 성별, 학년별로 다루고자 한다.

우선 분노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가장 빈번히 경험되는 정서 중의 하나이지만, 분노가 부적절한 방식으로 표현될 경우에는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해치거나 다양한 신체 및 정신 병리적 문제를 야기 시킨다. 그러나 분노는 중요한 정서임에도 불구하고 불분명한 개념 정립과 DSM 진단기준에 명확한 구분이 없다는 이유로 비행청소년의 연구에서 우울 또는 불안에 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⁷⁾ 물론, 청

소년의 비행에 분노가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부적응 청소년 집단이 적응 청소년 집단보다 더 높은 수준의 분노를 경험한다고 보고 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론가들은 분노가 공격행동과 비행행동의 주요 유발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분노는 청소년 발달의 여러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성인이 되어서도 일생동안 지속되는 문제들과 연관이 있게 된다. 따라서 발달 특성상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많은 적응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행청소년에 있어서 분노에 대해 조기 선별과 예방적인 개입의 필요성이 절실하다⁸⁾. 또한 비행청소년은 대체적으로 갈등과 좌절을 야기하는 상황에서 분노를 적절히 표현하거나 조절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들은 조절되지 않은 분노로 인해 많은 적응상의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다음으로 스트레스반응을 보면, 청소년들은 그들의 불안정성으로 의해서 일상적인 생활에서 변화와 욕구조절, 대인관계상에서의 충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반응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⁹⁾. 스트레스반응이 심한 경우에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이 발생하는데, 이와 비행과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는 외국의 연구들이 있는 반면¹⁰⁾, 정신병리적 비행집단의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는 오히려 정서적으로 무감각하여 스트레스반응이 적다는 연구도 있다¹¹⁾. 이처럼 비행의 정도와 특성에 따라 스트레스 반응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훈방비행청소년’들의 스트레스 반응정도를 알고 일반청소년들과 비교하는 것이 이들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추측이 된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비교를 보면, 그 동안의 여러 국내 외 비행 연구에서 여자 비행청소년의 유병율이 남자 비행청소년에 비해 낮아서 여자 비행청소년에 대한 충분한 수를 연구할 수 없었던 제한점들이 많았다¹²⁾.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자 비행청소년들도 남자 비행청소년과 비슷한 수로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남녀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학년에 따른 비교를 보면, 비행연구에 있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즉 학년으로 나누어 시행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물론 발생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제한점은 있으나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상 중, 고의 학년 구분이 뚜렷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들 각각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가벼운 비행을 저지른 ‘훈방대상 비행청소년’(이하 줄여서 비행청소년으로 함)을 대상으로 분노, 분노대처, 스트레스반응 각각의 특성과 이들의 성별, 학년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목표를 세웠다. 첫째,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분노, 분노대처, 스트레스반응을 비교하여 특성을 파악하고, 둘째,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며, 셋째,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비행예방을 위한 치료적 개입에 도움이 되는 사항들을 논의한다.

대상 및 방법

1. 대 상

본 연구는 서울시 전 지역 경찰서에서 의뢰된 초범, 경범 청소년 중 훈방대상에 속한 법적 나이인 12~19세까지의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찰서에서 일시 보호된 비행청소년 중에서 검찰 송치에서 제외된 청소년,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대상에서 제외된 촉법소년 또는 우범소년, 즉결처분대상이 되는 비행범 청소년(피해자가 있을 때는 피해보상, 용서 등 합의가 된 경우), 기타 현행 법규에는 저촉이 되지 않으나 자기 또는 타인의 위생이나 덕성에 유해한 불량행위를 한 청소년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등이었다.

연구대상 비행청소년들의 비행내용은 절도가 27.4%로 제일 많았고, 그 외 폭력 및 폭행(23.5%), 특수절도(17.4%), 무면허운전(7.9%), 갈취(6.7%), 유해물질 흡입 또는 복용(5.8%), 기물파손(4.3%), 공갈(2.4%), 윤락행위(2.1%), 기타(2.4%)였다.

비행청소년집단에 대해 2003년 1월부터 6월까지 남자는 5회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고, 여자의 경우 숫자가 적어 7회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연구자와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집단으로 나누어 수집하였다. 그리고 자료 수집 시에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의욕을 고취시킨 다음에 자료를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개인의 비밀을 보장할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솔직하게 설문지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조군인 일반학생집단은 동년 1월부터 6월까지 협조가 가능한 서울시내의 남녀공학 중고등학교 각각 한 군데씩을 선정하여 각 학년 당 2개 학급씩 무선표집하였다.

비행청소년집단과 일반학생집단을 합쳐 총 815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이 중 불충분한 응답을 한 것과 12세에서 19세 사이의 나이에 해당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하여, 최종 대상자는 비행청소년집단이 총 285명, 학생집단이 총 391명이었고, 이를 성별과 학년 별로 구분하면 남자 377명, 여자 299명, 중학교 346명, 고등학교 330명이었다(Table 1).

2. 측정도구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는 참가자들의

Table 1. Demographic data

	Variables	Number (%)
Group	Delinquent G	285 (42.16%)
	Student G	391 (57.84%)
Gender	Male	377 (55.8%)
	Female	299 (44.2%)
Grade	Middle school	346 (55.9%)
	High school	330 (44.1%)
Total		676(100%)

성실한 답변을 유도하고 집중도를 최대한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5분 이내에 작성할 수 있도록 4쪽 분량으로 간소하게 제작하였다. 설문지는 분노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전점구 등¹³⁾이 개발한 한국판 상태-특성분노표현척도(STAXI-K : Korean Adaptation of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를 사용하였다¹³⁾. 척도의 각 문항마다 전혀 아니다 1) 약간 그렇다 2) 어느 정도 그렇다 3) 아주 그렇다 4로 구분하여 응답하게 되어 있다. 응답점수는 상태분노 10~40점, 특성분노 10~40점, 분노대처방식 24~96점의 범위에서 나타날 수 있다. 상기 척도는 크게 상태-분노척도와 분노대처척도로 크게 구분 할 수 있다. 우선 상태-분노척도의 하위척도 내용을 살펴보면, 상태분노(Cronbach' α =.93)는 특정한 시기의 분노감정을, 특성분노(Cronbach' α =.86)는 분노를 경험하는 경향의 개인차를 말한다. 다음으로 분노대처척도의 하위척도 내용을 살펴보면, 분노억제(Cronbach' α =.52)는 분노감정의 자제나 억압하는 빈도, 분노표출(Cronbach' α =.76)은 주어진 환경에서 어떤 대상에게 개인적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빈도, 분노조절(Cronbach' α =.68)은 분노표현을 조절하려고 하는 빈도를 말한다.

스트레스반응은 사건충격척도(Impact of Event Scale)를 Horowitz 등(1979)이 개발한 사건충격척도를 변안한 것¹⁴⁾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모두 15문항이며 반복생각(침습적생각) 7문항, 생각회피 8문항으로 2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반복생각하위척도는 스트레스 사건을 생각하지 않으려는 수준을 측정한다. 사건충격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9로 높게 나왔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r =.73, 타당도는 BDI, IES, MMPI-PTSD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p < 0.01$).

3. 통계 처리

모든 자료에 대한 통계처리는 SPSS 11.0를 사용하여 시행하였으며, 분노와 분노대처 그리고 스트레스반응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를 사용하여 평가하였고 성별과 학력에 따른 집단간 차이는 two-way ANOVA로 평가하였다.

결 과

1.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비교

상태분노척도, 특성분노척도, 전체분노척도에서 모두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높았다($p < 0.01$). 분노억제척도와 분노조절척도에서는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낮았고($p < 0.01$), 분노표출척도에서는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높았다($p < 0.01$). 그리고 스트레스반응척도에서는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낮았다($p < 0.05$) (Table 2).

2. 성별에 따른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비교

남자집단을 보면, 상태분노척도, 특성분노척도, 전체분노척도에서 남자 비행청소년이 남자 일반청소년보다 높았다($p < 0.01$). 그리고 분노억제척도에서는 남자 비행청소년이 남자 일반청소년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p = 0.087$), 분노표출척도에서는 남자 비행청소년이 남자 일반청소년보다 높았으며($p < 0.01$) 분노조절척도에서는 남자 비행청소년이 남자 일반청소년보다 낮았다($p < 0.05$). 그리고 스트레스반응척도에서는 남자 비행청소년이 남자 일반청소년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480$).

여자집단을 보면, 상태분노척도와 전체분노척도에서는 여

자 비행청소년이 여자 일반청소년보다 높았고($p < 0.01$), 특성분노척도에서도 여자 비행청소년이 여자 일반청소년보다 높았으며($p < 0.01$), 그리고 분노억제척도에서는 여자 비행청소년이 여자 일반청소년보다 낮았고($p < 0.01$), 분노표출척도에서는 여자 비행청소년이 여자 일반청소년보다 높았다($p < 0.01$). 그리고 스트레스반응척도에서는 여자 비행청소년이 여자 일반청소년보다 낮았다($p < 0.001$) (Table 3).

분노억제척도와 스트레스반응척도에서 여자집단에서는 차이가 있었으나 남자집단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성별과 집단간의 상호작용효과를 검토해보면, 각각의 두 척도에서 상호작용은 없었다($F = 1.405$ $p > 0.05$, $F = 3.391$ $p > 0.05$)

3. 학년에 따른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비교

중학교집단의 분노조절척도와 스트레스반응척도에서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나머지 척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고등학교집단에서는 모든 척도에서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4).

분노조절척도와 스트레스반응척도에서 고등학생집단에서는 차이가 있었으나 중학생집단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학년과 집단간의 상호작용효과를 검토해보면, 각각의 두 척도에서 상호작용은 없었다($F = 0.404$ $p > 0.05$, $F = 1.691$ $p > 0.05$)

Table 2. Comparison of delinquent characteristics of anger, anger coping and stress response in delinquents group and student group

Variables	Delinquent (N=285)		Student (N=391)		t	p value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Anger	State anger	16.43 (5.31)	15.01 (4.78)		3.570 [†]	.000
	Trait anger	20.64 (6.99)	18.18 (6.01)		4.801 [†]	.000
	Total anger	37.04 (10.95)	33.10 (9.51)		4.832 [†]	.000
Anger coping	Anger in	7.84 (2.50)	8.58 (2.94)		-3.530 [†]	.000
	Anger out	17.43 (4.82)	15.83 (5.09)		4.056 [†]	.000
	Anger control	19.65 (5.33)	21.10 (6.35)		-3.216 [†]	.001
Stress response	26.42 (8.27)	28.07 (9.37)		-2.401*	.017	

* :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level of $p < 0.05$, † :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level of $p < 0.01$

Table 3. Comparison of delinquent characteristics of anger, anger coping and stress response in male group and female group

Variables	Male (N=377)				Female (N=299)				
	Delinquent (n=187)		Student (n=190)		Delinquent (n=97)		Student (n=202)		
	Mean (SD)	Mean (SD)	t	p value	Mean (SD)	Mean (SD)	t	p value	
Anger	State anger	16.01 (5.03)	14.96 (4.97)	2.032*	.043	17.30 (5.76)	15.07 (4.60)	3.298 [†]	.001
	Trait anger	20.59 (6.93)	17.86 (6.10)	4.061 [†]	.000	20.81 (7.15)	18.48 (5.96)	2.729 [†]	.007
	Total anger	36.46 (10.63)	32.79 (9.89)	3.458 [†]	.001	38.23 (11.54)	33.39 (9.16)	3.525 [†]	.001
Anger coping	Anger in	7.90 (2.53)	8.38 (2.91)	-1.716	.087	7.74 (2.30)	8.77 (2.95)	-3.279 [†]	.001
	Anger out	17.16 (4.88)	15.49 (5.19)	3.156 [†]	.002	17.95 (4.70)	16.15 (4.99)	2.955 [†]	.003
	Anger control	20.09 (8.113)	21.62 (7.09)	-2.379*	.018	18.77 (5.58)	20.64 (5.59)	-2.692 [†]	.008
Stress response	27.09 (8.11)	27.73 (9.32)	-.708	.480	25.11 (8.47)	28.38 (9.43)	-2.887 [†]	.004	

* :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level of $p < 0.05$, † :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level of $p < 0.01$

4. 비행유무에 따른 성별, 학년의 비교

비행집단의 분노조절척도에서 남자 비행청소년이 여자 비행청소년보다 높았다($p < 0.05$) (Table 5). 분노조절척도에서 비행집단에서의 성별에 따른 차이만 있었고 일반집단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성별과 집단간의 상호작용효과를 검토해보면, 상호작용은 없었다($F = 0.037$ $p > 0.05$).

비행집단의 특성분노척도와 분노조절척도에서 고등학교 비행청소년이 중학교 비행청소년보다 높았다($p < 0.05$, $p < 0.05$)

(Table 6). 특성분노척도에서 비행집단에서의 학년에 따른 차이만 있었고 일반집단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학년과 집단간의 상호작용효과를 검토해보면, 상호작용은 없었다($F = 1.195$ $p > 0.05$). 그리고 분노조절척도에서 비행집단과 일반집단 모두에서 학년 간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학년과 집단간의 상호작용효과를 검토해보면, 상호작용은 없었다($F = 1.619$ $p > 0.05$). 그리고 스트레스반응척도에서 비행집단에서의 학년에 따른 차이가 있었고 일반집단에서는 차이가 있었

Table 4. Comparison of delinquent characteristics of anger, anger coping and stress response in middle school group and high school group

Variables	Middle school (N=346)				High school (N=330)					
	Delinquent (n=143)		Student (n=203)		t	p value	Delinquent (n=141)		Student (n=189)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t	p value		
Anger	State anger	16.33(4.96)	14.99(5.15)	2.394*	.017	16.64(5.68)	15.04(4.35)	2.781 [†]	.006	
	Trait anger	19.66(6.59)	17.67(6.26)	2.814 [†]	.005	21.71(7.33)	18.73(5.69)	3.976 [†]	.000	
	Total anger	35.96(10.24)	32.50(10.09)	3.050 [†]	.002	38.26(11.62)	33.76(8.82)	3.829 [†]	.000	
Anger coping	Anger in	7.69(2.56)	8.35(3.04)	-2.175*	.030	8.05(2.45)	8.84(2.80)	-2.715 [†]	.007	
	Anger out	17.39(4.99)	15.69(5.27)	2.977 [†]	.003	17.55(4.73)	15.99(4.91)	2.851 [†]	.005	
	Anger control	18.92(5.29)	19.89(6.27)	-1.494	.136	20.36(5.27)	22.42(6.19)	-3.223 [†]	.001	
Stress response	25.80(8.08)	26.66(8.97)	-.910	.363	27.20(8.49)	29.59(9.59)	-2.334*	.020		

* :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level of $p < 0.05$, † :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level of $p < 0.01$

Table 5. Gender difference of anger, anger coping and stress response in delinquent group and student group

Variables	Delinquent (N=285)				Student (N=391)					
	Male (n=196)		Female (n=89)		t	p value	Male (n=181)		Female (n=210)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t	p value		
Anger	State anger	16.01(5.03)	17.30(5.76)	-1.942	.053	14.96(4.97)	15.07(4.60)	-.221	.825	
	Trait anger	20.59(6.93)	20.18(7.14)	-.257	.798	17.86(6.07)	18.48(5.95)	-1.027	.305	
	Total anger	36.46(10.63)	38.23(11.54)	-1.266	.206	32.79(9.89)	33.39(9.16)	-.620	.536	
Anger coping	Anger in	7.90(2.59)	7.74(2.30)	.491	.624	8.38(2.91)	8.77(2.95)	-1.290	.198	
	Anger out	17.16(4.88)	17.95(4.70)	-1.320	.188	15.49(5.19)	16.15(4.99)	-1.247	.213	
	Anger control	20.09(5.15)	18.77(5.58)	1.986*	.048	21.62(7.08)	20.64(5.59)	1.500	.135	
Stress response	27.09(8.11)	25.11(8.47)	1.924	.055	27.73(9.32)	28.38(9.43)	-.673	.501		

* :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level of $p < 0.05$

Table 6. Grade difference of anger, anger coping and stress response in delinquent group and student group

Variables	Delinquent (N=285)				Student (N=391)					
	Middle school (N=143)		High school (N=142)		t	p value	Middle school (N=203)		High school (N=188)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t	p value		
Anger	State anger	16.33(4.96)	16.64(5.68)	-4.77	.633	14.99(5.15)	15.04(4.35)	-.098	.922	
	Trait anger	19.66(6.59)	21.70(7.33)	-2.427*	.016	17.67(6.26)	18.73(5.69)	-1.736	.083	
	Total anger	35.96(10.24)	38.26(11.62)	-1.742	.083	32.50(10.10)	33.76(8.82)	-1.293	.197	
Anger coping	Anger in	7.69(2.56)	8.05(2.45)	-1.224	.222	8.35(3.04)	8.84(2.80)	-1.667	.096	
	Anger out	17.39(4.99)	17.54(4.73)	-.271	.787	15.69(5.27)	15.99(4.91)	-.570	.569	
	Anger control	18.92(5.29)	20.36(5.27)	-2.291*	.023	19.89(6.27)	22.42(6.19)	-3.969 [†]	.000	
Stress response	25.80(8.08)	27.20(8.49)	-1.418	.157	26.66(8.97)	29.59(9.59)	-3.067 [†]	.002		

* :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level of $p < 0.05$, † :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level of $p < 0.01$

다. 그래서 학년과 집단간의 상호작용효과를 검토해보면, 상호작용은 없었다($F=0.404$ $p>0.05$).

고 찰

본 연구는 가벼운 범법행위를 한 '훈방대상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들은 서울특별시립 서울청소년수련관의 재 비행예방 프로그램 '사랑의 교실'에 참석한 청소년들이다. 이들의 비행은 상당수가 아동기말과 성인기 시작 사이의 변환기에서 겪는 내적 갈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나, 이들의 비행에 대해 적절한 선도와 교육이 없이 방치할 경우 심한 범죄 청소년이 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이들의 특성을 더욱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앞선 연구⁶⁾에서 이들의 사회문화적, 문제행동특성에 대하여 다루었다. 앞선 연구가 기존의 비행청소년 연구에서 주로 다루었던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광범위하지만 다소 표층적으로 다루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개괄적인 틀을 잡으려고 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주요 정서반응으로 생각되는 분노와 스트레스반응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어서 이들의 본질에 한걸음 더 다가가고자 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더욱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것에 의의를 두었다. 주요 연구결과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인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노수준을 보면,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서 상태 분노척도, 특성분노척도, 전체분노척도에서 높았다. 국외의 연구에서 Dodge¹⁵⁾는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더 높은 분노를 경험한다고 했고, 또한 분노는 비행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국내의 연구에서 김광수¹⁶⁾는 비행청소년을 포함한 여러 부적응집단의 청소년들에게서 분노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분노는 비행청소년의 특성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내외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분노대처를 보면,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분노표출에서는 높았으나 분노억제와 분노조절에서는 낮았다. 홍경자 등¹⁷⁾은 비행청소년은 분노를 억제하거나 표출하는 태도를 취하고 일반청소년은 분노를 조절하는 형태를 취한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하회경¹⁸⁾은 비행청소년의 경우 충동조절의 장애가 많이 동반되어서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내적 공격적 충동이 조절이나 억제보다는 표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도 이와 일치하였다.

비행청소년이 낮은 분노조절과 높은 분노표출을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일치된 소견이 보고되고 있으나, 분노억제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되는 의견들이 보고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비행청소년은 충동적이어서 분노억제가 낮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비행청소년에게서 분노억제가 더 높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Enright 등¹⁹⁾에 의하면 분노억제가 당장은 문제를 나타내지 않는 자기 방어기제 역할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장기화되거나 심해질 때 우울, 불안, 무기력, 신체화증상 등의 다양한 정신병리와 같은 부정적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갑작스런 격한 분노표출로 나타나서 심한 비행을 저지를 수 있는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고려해 보면 '훈방대상 비행청소년'들은 분노억제를 비교적 낮게 사용하고 있어 충동적일 수는 있으나 분노가 장기화 될 때, 분노억제에서 비롯된 부작용들은 비교적 심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성별에 따라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노대처를 보면, 분노억제는 남자비행청소년과 남자일반청소년의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행청소년의 분노억제가 높거나 혹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는 기존의 연구 결과¹⁷⁻¹⁹⁾와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인 훈방대상 남자비행청소년은 억제가 높았을 때 올 수 있는 대인관계에서의 악영향⁶⁾, 더욱 심한 비행 초래, 우울 등의 정신병리의 동반과 같은 부정적 결과가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억제가 낮았을 때 볼 수 있는 즉충동적인 것과 관련된 다양한 부정적 결과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추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분노조절에서도 남자 비행청소년이 여자 비행청소년에 비해 더 높았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로 추론해보면, 분노대처에 있어서 남자 비행청소년이 여자 비행청소년보다 더 효율적인 것으로 추측된다.

스트레스반응을 보면, 남자 비행청소년과 남자 일반청소년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여자 비행청소년은 여자 일반청소년에서보다 낮았다. 그리고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스트레스반응이 낮았으므로, 여자 비행청소년이 남자 비행청소년보다 스트레스반응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평균의 단순비교로도 알 수 있다(Table 5). 외국의 연구를 보더라도 여자 비행청소년은 남자보다 더 심한 정신병리, 학대, 가족의 위협요소가 있으며²⁰⁾, 여자에게 비행이 발생하려면 생물학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더 많은 압력이 가해져야 하며, 여자 비행청소년의 가족은 더 역기능적이었다고 보고되고 있다²¹⁾. 훈방대상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 결과도 이를 지지해 주고 있다.

셋째, 학년에 따라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노수준을 보면, 고등학교 비행청소년은 중학교 비행청소년에 비해 특성분노에서 높았다. 특성분노란 상태분노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분노경향성으로 상당한 시간에 걸쳐 안정되게 나타나는 개인의 성격적 경향성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²²⁾. 높은 특성분노의 원인으로써 국내 고등학생의 현실적 문제에서 찾아보면, 학업, 진로, 대인관계, 학교폭력, 학교규칙 및 학교문화풍토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지속적인 분노가 이들의 성격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고등학교시기 즉 다소 늦은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비행의 원인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분노대처를 보면, 고등학교 비행청소년은 중학교 비행청소년에 비해 분노조절에서 높았으며, 고등학교 일반청소년과 중학교 일반청소년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는 비행에 관계없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분노조절을 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Averill⁷⁾은 분노대처는 연령에 따라 변화한다고 하였으며,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공격을 하기보다는, 공격적 충동을 억제하고 언어적 혹은 상징적 공격의 형태를 보이거나, 오히려 차분한 활동을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Frydenberg²³⁾는 나이가 어릴수록 분노는 빈번하고 강렬하게 표출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분노표현의 빈도와 강도는 감소한다고 하였다. 이런 발달경향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이 행동적 대처에서 인지적 대처로 변하는 것, 사회적 규칙에 대한 학습, 미래의 결과에 대한 예측, 그리고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노조절에서 고등학교 비행청소년이 중학교 비행청소년보다 더 높은 것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반적인 발달의 결과일 수 있으나, 중학교 비행청소년이 고등학교 비행청소년에 비해서 주의력결핍장애등의 정신병리 등이 더 많이 동반이 되어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²⁴⁾.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단순히 자기보고식 설문지 외에 전문가의 임상적 관찰 및 진단 등을 이용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하여 보면 치료적인 개입도 학년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중학교 비행청소년은 고등학교 비행청소년에 비해 전체분노수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분노조절에서는 낮았다. 높은 분노수준이 비행의 위험요소라 한다면, 분노조절은 비행의 보호요소라 할 수 있으므로 치료도 위험요소는 낮추고, 보호요소는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 비행청소년에게 분노수준을 낮추기 보다는 분노조절능력을 길러주는 치료적 개입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와 같은 치료프로그램으로는 부적응적 인지과정이 분노를 유발한다고 보는 인지행동치료²⁵⁾가 있고 분노경험은 높은 생

리적 긴장상태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보는 이완치료²⁶⁾가 있으며, 발달단계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기술 습득의 부족이나 부적절한 사회화와 잘못된 충동조절 모델에 의한 학습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으로 보는 사회기술훈련 등²⁷⁾이 있다.

고등학교 비행청소년은 중학교 비행청소년에 비해서 비행의 위험요소인 특성분노에서 높았다. 따라서 치료적 개입으로 분노수준을 낮추는 프로그램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김용태 등²⁸⁾에 의하면 청소년의 분노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 내적(심리적)인 유발요인과 외적인 유발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내적 유발요인으로는 부정적 자아개념, 공격성, 충동성 및 당위적 사고 등을 들 수 있다. 외적 유발요인으로는 부모의 비 일관적인 태도, 권위주의적 태도, 비난하는 태도, 투사하는 태도 등을 포함하는 부모, 가정변인과 지나치게 엄격한 학교규칙, 문제아로 낙인찍고 편애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교사의 태도, 공부만 강요하는 학교문화 등을 포함하는 학교변인, 그리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따돌리며 폭행하는 친구들의 태도를 포함하는 친구변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분노가 높을수록 분노표출이 많다는 연구보고¹⁶⁾가 있다. 따라서 이런 결과는 고등학교 비행청소년에서는 분노수준 자체를 낮추기 위한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바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역동적이고 종단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의 분노, 분노대처, 스트레스반응의 단면적인 경향만 보였다. 그러나 이들의 복합적인 역동성과 이들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다양한 경로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일반집단에서 비행을 배제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일반학생 중에서 비행 하위척도의 점수가 높은 학생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들도 비행청소년과 유사한 특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의 연구에서 이들을 배제한다면 보다 정확한 비교가 될 것이다.

셋째, 임상적 관찰 및 진단이 필요하다. 비행청소년들의 자기 보고식 자료에만 의거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비행청소년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는데 있어서 방어적인 사실을 고려하여보면, 비행연구의 경우 이러한 자기보고의 자료는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넷째, 스트레스반응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회피와 침묵의 하위척도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과 스트레스의 정도와 종류에 따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스트레스 반응측정에 사용된 사건충격척도는 단지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의 대처과정에만 역점을 두었다¹⁴⁾

References

- 1) Adam B, Kashani J, Schulte E. The classification of conduct disorder. *Child Psychiatry Hum Dev* 1991;22:3-16.
- 2) Aronowitz B, Liebowitz M, Hollander E, Fazzini E. Neuropsychiatric and neuropsychological findings in conduct disorder and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J Neuropsychiatry Clin Neurosci* 1994;6:245-249.
- 3) 이구열. 중. 고등학교 학생비행에 관한 정신의학적 연구. 부산의대잡지 1980;20:1-17.
- 4) Sroufe LA. Pathways to adaptation and maladaptation: Psychopathology as developmental deviation in the emergence of a discipline: Rochester Symposium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Ed by Cicchetti D and Hillsdale N, Lawrence. Erlbaum Associates;1990. p.113-140.
- 5) Zoccolillo M, Tremblay R, Vitaro F. DSM-III-R and DSM-III criteria for conduct disorder in preadolescent girls: specific but insensitive.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1996;35:461-470.
- 6) 이후경, 윤태원, 윤성철, 박상군, 김태우, 안현주. 훈방대상 남녀 비행청소년의 사회심리적 특성. *사회정신의학* 2003; 8(2):87-100.
- 7) Averill J. Studies on anger and aggression. *Am Psychol* 1983; 38:1145-1160.
- 8) Loeber R. Antisocial behavior-more enduring than changeable?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1991;30:393-397.
- 9) Sigel JM, Brown JD. A prospective study of stressful circumstances, illness, symptoms, and depressed mood among adolescents. *Dev Psychol* 1988;24:715-721.
- 10) Cauffman E, Feldman SS, Waterman J, Steiner H.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mong female juvenile offenders.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1998;37:1209-1216.
- 11) Jenkins RL. diagnosis, dynamics and treatment in child psychiatry. *Psychiatr Res Rep* 1964;18:91-120.
- 12) Cohen P, Cohen J, Kasen S, Velez CN, Hartmark C, Johnson J, et al. An epidemiological study of disorders in late childhood and adolescence: I. Age and gender specific prevalence. *J Child Psychol Psychiatry* 1993;34:851-867.
- 13)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 CD.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심리학회: 건강* 1997;2:60-78.
- 14) 이선미, 은현정. 한국판 사건 충격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1999;38(3):501-511.
- 15) Dodge KA. Attributional bias in aggressive children. *Adv Cognitive-Behav Res Therapy* 1985;4:73-110.
- 16) 김광수. 청소년의 분노수준, 분노대처방식과 학교생활적응. *한국교육심리학회* 2003;17(3):393-410.
- 17) 홍경자, 채유경, 이명자.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과 자아존중감,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그들의 분노표현방식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2000;1(1):161-181.
- 18) 하회경. 청소년 비행에 관한 사회정신의학적연구. *신경정신의학* 1982;21(2):237-254.
- 19) Enright RD, Fitzgibbons RP. *Helping Clients Forgive: An Empirical Guide for Resolving Anger and Restoring Hope*. APA; 2000.
- 20) McCabe K, Lansing A, Garland A, Hough R. Gender differences in psychopathology, functional impairment, and familial risk factors among adjudicated delinquents.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2002;41:860-867.
- 21) Henggeler S, Edwards J, Borduin CM. The family relations of female juvenile delinquents. *J Abnorm Child Psychol* 1987;15: 199-209.
- 22) Spieberger CD, Jacobs GA, Russell S, Crane RS. Assessment of Anger. The State-Trait Anger Scale. *Adv Personality Asses* 1983;2:159-187.
- 23) Frydenberg E. *Adolescent coping: Theoretical and research perspectives*. London, Routledge;1997.
- 24) Moffitt TE, Caspi A, Dickson N, Silva P, Stanton W. Childhood-onset versus adolescent-onset antisocial conduct problems in males: Natural history from ages 3 to18 years. *Dev Psychopathol* 1996;8:399-424.
- 25) Dodge KA, Coie JD. Social-information processing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s. *J Pers Soc Psychol* 1987;53:1146-1158.
- 26) Hazaleus SL, Deffenbacher JL. Relaxation and cognitive treatments of anger. *J Consult Clin Psychol* 1986;54:222-226.
- 27) Lecoy CW. Social competence training. In A. R. *Adv Adolesc Mental Health* 1986;1:104-114.
- 28) 김용태, 박한샘, 강신덕. 청소년의 분노조절 훈련프로그램.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1995.

**ANGER, ANGER COPING AND STRESS RESPONSE IN DELINQUENT
ADOLESCENTS RELEASED WITH WARNING BY POLICE**

- FOCUSED ON THE PARTICIPANTS OF THE INTERVENTION PROGRAMS -

**Sang-Kun Park, M.D., Hoo-Kyeong Lee, M.D., Sung-Chul Yoon, M.D.,
Hyun-Joo Ahn, M.S.W., Sun-Jae Kim, M.D.,
Yang-Weon Bang, M.D., Hye-Jin Jang, M.A.**

Keyo Hospital, Uiwang

Objects : We performed this study to investigate anger, anger coping, stress response, grade differences and gender differences in delinquent adolescents who were released with warning by police.

Methods : The subjects consisted of 285 delinquent adolescents who participated in the intervention program for preventing delinquency and 391 school students (male : 377, female : 299/middle school : 346, high school : 330) in Seoul. STAXI-K and IES were used.

Results : 1) The delinquent adolescent group had the higher scores of 'state anger', 'trait anger', 'total anger' than the student group. But the delinquent adolescent group had the lower scores of 'anger in', 'anger control' and 'stress response' than the student group.

2) The male delinquent adolescent group had the higher scores of 'anger control', 'stress response' than the female delinquent adolescent group.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nger.

3) The high school delinquent adolescent group had the higher scores of 'trait anger', 'anger control' than the middle school delinquent adolescent group. The high school adolescent group had the higher scores of 'stress response' than the middle school adolescent group.

Conclusion : In anger, anger coping and stress response, the normal student group were different from the adolescent group who were released with warning by police committed. According to the grade and gender, differences were reported in this study. These characteristics can be more easily and more effectively applied to programs for the adolescent group who were released with warning by police committed.

KEY WORDS : Delinquent adolescent · Anger · Anger coping · Stress response.